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영광의 자리입니다》

조국을 멀리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절세위인들을 모시는 영광의 시작이다. 가까이 있는 지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꼭꼭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여기에 오늘날 재일동포들이 잊지 못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80돌이 되는 주체81(1992)년 4월 15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총련영웅대표단 성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촬영장에 나오셨었다. 총련영웅대표단 성원들의 가슴은 그나름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었다.

얼마나 바라고 소원하던 순간이었던가. 언제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주시며 평범한 자기들을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라며 그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때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영대앞으로 나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한 일군을 부르시었다. 서둘러 다가서는 그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촬영대에 올라선 한 할머니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며 왜 로인들을 뒤에 서게 하였는가고 물으시었다. 사실 앞줄에 간부들이 서다니 나이많은 영웅들과 그 부인들이 뒤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있는 일군을 가깝게 나무람하시며 촬영대의 뒤줄에 선 로인들을 앞자리에 내

려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다시 잡아주시었다. 순간 촬영대에 선 영웅대표단 성원들은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 바를 몰라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자기들, 총련영웅들이 모두 동부인을 하고 조국을 방문하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있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뒤줄에 올라섰던 로인들이 모두 앞자리에 내려졌을 때에야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촬영대에 서시었다.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잡아주시는 그날의 영광의 자리. 진정한 그것은 총련의 오랜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가장 높이 내세워주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전하는 사랑의 앞자리, 믿음의 앞자리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만 지금도 총련일군들은 그날의 감동은 화폭을 되새기면서 절세위인들의 고매한 품모와 위대성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총련의 한 일군은 그날의 뜻깊은 사진앞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영광의 자리입니다.》라고 격정 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대표단성원들은 뜨거운 격정과 목이 메어 어깨를 들먹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뒤줄에 올라섰던 로인들이 모두 앞자리에 내려졌을 때에야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촬영대에 서시었다.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잡아주시는 그날의 영광의 자리. 진정한 그것은 총련의 오랜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가장 높이 내세워주

절세위인들과 총련

총련본부위원장의 제 25기 제 1차회의

총련본부위원장의 제25기 제1차회의가 9월 21일과 22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 제1부위원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원, 송근학, 서충언부위원장, 재정위원회 위원장,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총련본부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참사, 부국장, 중앙감사위원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추악되었다. 허종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구호 제1부위원장 겸 조직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백과전서이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휘황한 실경도, 실천강령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강령적서한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한 일대 군중운동을 벌일 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전 조직이 서한관철에 총력기해나사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총련은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향창조운동》을 전 조직적 대대운동으로 벌일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고리는 모든 조직, 전체 일군들과 비전일성자들을 주역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자신들의 결심에 따라 운동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본부위원장이 전향창조에서 사상적종자와 기본주제를 정확히 틀어쥐고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예극에추창조운동을 일관성있게 벌여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명심하고 지난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다지면서 분회제 건포도들을 거이이 달성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본부위원장에 나선 기 본과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서한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

리 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련중시, 동포사랑을 폐부로 느끼도록 하는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총련중앙과 본부위원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커다란 정치적신임을 심장에 깊이 새기고 거이이 서한관철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분투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총련본부위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 정치적신임을 깊이 새기고 사상관점, 사업적관과 전개, 일 본새부터 전환하여 모든 활동을 서한관철에 지향, 북중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허종만의장이 회의결속을 하였다. 본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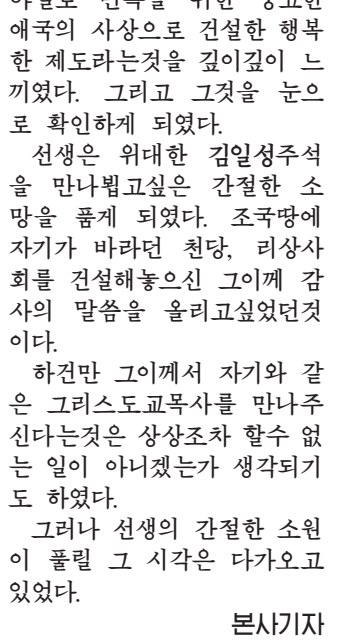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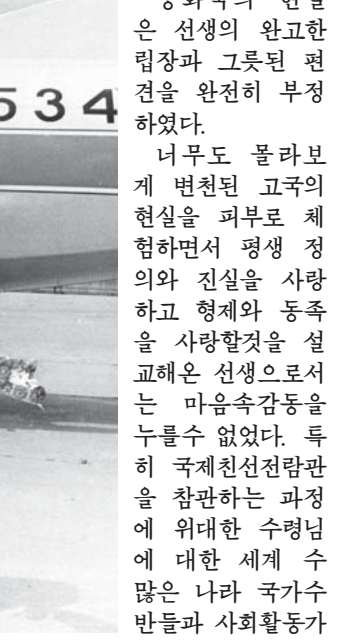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련북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인 목사 (2)

1981년 6월 어느날 평양비행장(당시)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팔손을 바라보는 고흥의 한 해외동포인사가 내렸다. 자못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고국산천을 둘러보는 그는 조국통일총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연합회》 고문인 김성락선생이었다. 당시 남조선당국이 해외동포들이 사는 나라들에 의무부 장관까지 파견하여 《북에 가는것은 반국가행위로 된다》, 《북에 가면 가족, 친척들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 《재미없는 일이 생길줄 알라》고 위협공감을 해했지만 조국을 찾는 동포들의 대렬은 끊을 탄 물줄기나 같았다. 세계를 굽어보는 《평양아름》을 타고 김성락목사가 평양행비행기에 몸을 실은것은 고향을 떠난지 45년만이었다. 오래동안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과정에 공화국에 대한 심히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있던 선생은 속수에 도착한 후 취재기자들에게 자기 의 도착소식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자기에게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 조용히 왔

다가 조용히 돌아가고싶다는 것이었다. 고향과 친척들이 있는 공화국을 방문하는 그 시각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공화국에 대한 의혹과 경계심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국방문의 날이 지나면서 선생의 완고한 립장과 그릇된 편견에서는 도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와 봉화리를 비롯하여 조선혁명박물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금성드라코프공장과 미림갈문, 김일성종합대학 그리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등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선생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나라로 일떠선 공화국의 현실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럴수록 했던 앓다가 조국향리로 갔던 당초의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생각할수록 자신의 처사가 민망스러워난 선생은 자기의 조국방문보도와 함께 각지를 참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을 그대로 신문과 통신에 보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공화국의 현실은 선생의 완고한 립장과 그릇된 편견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너무도 몰라보게 변천된 고국의 현실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평생 의와 진실을 사랑하고 형제와 동족을 사랑할것을 설교해는 선생으로서의 마음속감동을 누를수 없었다. 특히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수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사회활동가

들, 각계 인사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공화국의 높은 국제적 권위앞에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느꼈었다. 어느날 선생은 보통강변을 돌아보았는데 이때도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몸소 보통강계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지도하시어 평양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였으며 진후에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과 문화시설들이 일떠선 락전의 분반으로 전변시키신 사실을 알게 된 선생은 감회깊은 눈길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하였다. 《옛날엔 홍수가 나면 보통강변우에까지 물이 올라와 술한 재산을 빚어내던 토성량이 이처럼 몰라보게 달라졌는것은 친척백을 이룩하신 주석님의 로고가 얼마나 많으셨는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조국의 변모된 현실을 직접 보는 과정에 선생은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과 오해를 풀수 있었다. 선생은 공화국의 사회제도야말로 민족을 위한 숭고한 애국의 사상으로 건설한 행복한 제도라는것을 깊이깊이 느끼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보고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조국방문 자기가 바라던 천당, 리상사회를 건설해놓으신 그이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시고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이께서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교목사를 만나주신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간절한 소원이 풀릴 그 시각은 다가오고 있었다. 본시기자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6)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패자의 숙치를 또다시 안겨줄 10여일간의 로미대결전

199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대결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북핵 위협》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인것이다.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사회주의의 보루인 공화국을 거이이 고립압살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었다. 당시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을 사후하여 공화국이 제출한 핵물질고량 초기보고서내용과 저들이 축적한 결과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주장을 들고나오게 하였으며 이것을 구실로 두개의 일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나섰다. 한편 1993년 1월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였으며 여기에 20여만의 침략부력과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지어 핵무기사용시의 지휘체제까지 발동하면서 군사적위협을 가해나섰다. 미국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령토와 인구수에 있어서나 군사비와 병력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진 조미사이의 군사대결은 사실상 공화국과 세계적국주의련합세력사이의 대결구도였다. 세계는 대결이나 타협이나 문제를 이렇게 세우고 공화국이 과연 어느쪽을 선택할것인가에 대해 가슴조이며 주시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미국의 범죄적인 반공화국핵소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시었다. 1993년 3월 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전군,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가 하달되었다. 명령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피로써 쟁취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게 심멸적인 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스리면서 떨칠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엄숙히 경고하였다. 최고사령관명령이 나간데 이어 강경한 군사적대응조치가 취해졌다. 내외호전세력들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실행단계에 들어간데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대규모타격집단들의 기동훈련이 맞받아 진행된것이다. 최고사령관명령에 접하여 군대는 물론 온 나라가 순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최고사령관명령을 접하자마자 그날로 평양에서는 20만여명의 로동청년들과 42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울 불라는 신념을 안고 조선인민군입대를 단행하였다.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된 후 10일 남짓한 기간에만도 전국적으로 150만여명의 청년들이 인

민군대입대를,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징병로병들이 복대를 단행하였다. 그들만이 아니라 남녀로소 전체 인민이 멸적의 기상을 안고 일떠섰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들어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적대세력들은 전황하였다. 바로 이런 때 적들에게 더 무서운 강타가 안겨졌다. 1993년 3월 11일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정세와 차후대책이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어 12일에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구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었다. 누구도 예측 못했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공세였다. 최고사령관명령이 발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는 죽가마 뿔뿔하였다. 형세는 이미 역전되었으며 승리는 확정적이었다. 3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전군,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소식이 전해졌다. 준전시상태의 조기해제로 적들은 또 한번 패자의 물골을 세상에 드러내보였다. 이렇게 공화국은 10여일간에 걸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하였다. 미국은 반공화국핵소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압력이나 위협으로도 공화국을 어쩔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본시기자 박철남

일본에서 동포추도모임 진행

간포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 9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제가 지금으로부터 99년전인 1923년 간포대지진때 조선동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치명적인 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도쿄에 있는 간포대지진조선인회생자추도비 앞에서 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포추도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먼저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묵상한데 이어 추도사가 있었다. 추도사에서는 99년전 이역땅에서 일제아수들에게 참혹하게 학살된 조선인회생자들에게 예도의 뜻을 표한다고 하면서 당시의 조선인학살사건은 국제법상 명백한 집단학살이며 이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당국의 배타주의사상에 근원을 두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학살의 역사의 은폐, 외곡하려고 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민족적차별과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모임에서는 추도사에 이어 공화국의 조선인간행회회차, 유가족협회에서 보내온 추도문이 소개되었다. 협회는 추도문에서 일본당국은 오늘날까지도 간포대지진조선인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느니, 《역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느니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있을 뿐 아니라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불리시키면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 해도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간포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과 같은 참상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피의 교훈을 새겨줄것을 다짐하며 희생자들을 추도하여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본시기자

민심과 여론의 비난배격을 받는 《대북정책》

공화국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 이후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대당의 《대북정책》을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북이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것만큼 비핵화협상에 나서는것부터가 북의 호응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 《북비핵화》는 더이상 실현가능성이 없다. 《북핵폐기》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미국정계에서도 현 행정부의 대조선정책방향이 비핵화에서 핵위기관리로 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핵폐기를 전제로 한 윤석열정권의 《담대한 구상》은 시각도 매기 전에 사멸되게 되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작성해야 한다. 북남 및 조미적대관계는 북의 핵폐문

에 산생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관계가 북의 핵무기개발을 조려했다. 윤석열정부가 대북선 제타격을 가한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과 《한국형3축타격체계》 구축에 매달릴수록 북의 대남핵공격위협은 더욱 강화될수밖에 없다.》고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북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고있지만 북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경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핵능력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국가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있는것이 북의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반공화국제대로 《북의 변화를 유도할수 있다는 대북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윤석열역적대당의 어리석은 《대북정책》에 대한 심랄한 비난이고 경고이다. 현실은 윤석열역적대당이 시대착오적이고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에 매달릴수록 민심과 여

론의 더 큰 비난과 배격에 직면하게 될뿐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시기자 박해방

